

한·미 FTA체결이 국내 농축산업계에 미칠 파장 및 대안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 주최 | 농수축산신문
- 일시 | 2006 . 2. 15 14:00 ~ 17:00
- 장소 | 한국마사회 대강당
- 후원 | 농림부,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천국한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KRA

- 행사일정 -

- 등록 13:30 ~ 14:00
- 개회식 14:00 ~ 14:15
- 좌장 이정환 (현 GSnJ 인스티튜트 이사장)

- 주제발표 14:20 ~ 15:05(각 15분)
 - 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
 - 홍지인 회교통상부 심의관
 -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휴식 15:05 ~ 15:15

- 지정토론 15:15 ~ 16:10(각 5분)
 - 김인식 한국계육협회 부회장
 - 신기엽 농협중앙회 조사부장
 - 이두원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이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팀장
 - 임정빈 경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정윤수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전무이사
 -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
 -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홍준근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상 가나다순)

- 종합토론 16:10 ~ 17:00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 영향

권오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머리말

농업분야에서는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농가부채 문제, 농업 인력의 고령화 등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 시장 추가 개방, DDA 농업 협상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개방 확대 및 국내 보조의 추가 감축은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3일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시를 선언하였다. 양국은 기자회견에서 2007년 3월까지 협상을 타결짓고 2008년부터 FTA를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DDA 농업협상 등 국제무대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국가이다. 넓은 경지면적을 바탕으로 곡물, 육류, 과일 등에서 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그만큼 한-미 FTA는 농업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에 대한 국내 농업계의 관심은 기존의 다른 FTA에서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 것이 사실이다. 농업계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산업과는 달리 미국과의 FTA에서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관심이 쏠릴 것이다. 미국측 입장에서 볼 땐 한-미 FTA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농산물시장인 한국 농산물 시장의 접근성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미국측은 협상개시 선언부터 예외 없는 포괄 FTA를 강조하고 있어서 농업분야는 한-미 FTA에서 주요 협상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

한-미 FTA의 농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몇몇 연구들은 농업생산 감소액이 최대 8조 2,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지만 연구결과간 차이가 많이 난다. 좀더 정확한 영향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예상영향을 분석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영향 분석에 앞서 미국농업의 개요와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2. 미국농업의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농산물교역

2.1. 미국 농업의 현황

가. 주요농업지표

미국은 국토면적 면에서는 세계 3위이나 경지면적 규모에서는 세계 1위이다. 2003년 미국의 국토면적은 9억 6,290만 ha, 경지면적은 1억 7,550만 ha로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97배, 95배 넓다<표 1>. 같은 해 미국의 인구는 2억 9,400만 명이며 농가 인구는 이 가운데 2%인 590만 명이다. 한국의 농가인구는 350만 명이며, 농가인구 비율은 7.2%이다. 미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약 30ha로서 한국의 0.5ha에 비해 60배나 넓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0조 8,572억 달러(2003년 기준)로 한국에 비해 21배이고 농업GDP는 한국보다 7.6배 많은 1,543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 전체 GDP에서 농업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한국의 4%보다 낮다. 특이한 사항은 미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래 1.4%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농업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농업은 타 산업과 비슷한 양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이 뒤져서 계속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체 수출입에서 농산물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각각 8.6%, 4.1%인 반면 한국은 1.0%, 5.4%이다. 2003년 기준 한국,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각각 19억 달러, 623억 달러로서 미국이 한국보다 33배나 많다. 농산물 수입은 미국이 한국보다 5.5배 정도 많다. 미국 농산물 수출은 규모나 전체 무역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나. 농산물 수급

미국은 경지면적이 넓어 곡물과 사료작물 재배가 주종을 이룬다. 작

표 1. 한국과 미국의 주요 농업지표

			1995	2000	2002	2003
한국	면적 (백만 ha)	총면적(A)	9.93	9.95	9.96	9.96
		경지면적(B)	2.11	1.89	1.86	1.85
		(B/A)*100	21.2	19.0	18.7	18.5
	인구 (백만명)	총인구(A)	45.0	46.8	47.4	47.7
		농가인구(B)	5.4	4.1	3.7	3.5
		(B/A)*100	12.0	8.8	7.7	7.2
	국내총생산 (억 달러)	GDP(A)	4,893	4,615	4,767	5,275
		농업분야GDP(B)	302.8	216.8	188.6	202.8
		(B/A)*100	6.2	4.7	4.0	3.8
	수출 (억 달러)	총 수출액(A)	1,251	1,723	1,625	1,938
		농산물 수출액(B)	16.5	15.3	16.8	19.0
		(B/A)*100	1.3	0.9	1.0	1.0
	수입 (억 달러)	총 수입액(A)	1,351	1,605	1,521	1,788
		농산물 수입액(B)	96.7	83.0	89.6	96.6
		(B/A)*100	7.2	5.2	5.9	5.4
미국	면적 (백만 ha)	총면적(A)	962.9	962.9	962.9	962.9
		경지면적(B)	182.1	176.8	176.0	175.5
		(B/A)*100	18.9	18.4	18.3	18.2
	인구 (백만 명)	총인구(A)	269.9	285.0	291.0	294.0
		농가인구(B)	7.0	6.3	6.1	5.9
		(B/A)*100	2.6	2.2	2.1	2.0
	국내총생산 (억 달러)	GDP(A)	73,384	97,621	103,831	108,572
		농업분야GDP(B)	1,135	1,357	1,423	1,543
		(B/A)*100	1.5	1.4	1.4	1.4
	수출 (억 달러)	총 수출액(A))	5,847	7,811	6,939	7,238
		농산물 수출액(B)	622.6	564.8	555.9	623.0
		(B/A)*100	10.6	7.2	8.0	8.6
	수입 (억 달러)	총 수입액(A)	7,709	12,582	12,024	13,053
		농산물 수입액(B)	338.4	449.5	450.3	534.8
		(B/A)*100	4.4	3.6	3.7	4.1

주)자료: UN Statistical Databases, FAO Statistical Databases

물 재배면적 1억 3,657만 ha 중 98%가 곡물(62.5%)과 사료작물(35.5%) 생산에 이용되고, 채소와 과일의 재배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2%에 불과하다. 1995년 이후 곡물 가운데 대두와 옥수수의 재배면적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밀, 보리, 수수의 재배면적은 감소추세에 있다.

채소류 중에서는 양상치, 고추, 마늘의 재배면적이 증가세에 있고, 토마토, 양파는 소폭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낸다. 과일 중에는 포도와 오렌지 재배면적이 전체과일 재배면적의 55%를 차지한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의 재배면적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소의 사육두수는 1990년대 후반 이래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돼지 및 닭 사육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농산물 중 생산이 증가추세에 있는 농산물은 옥수수, 쌀, 포도, 낙농품, 닭고기 등이고, 밀, 사과, 파인애플, 쇠고기 등은 생산이 감소 경향을 띤다. 생산액 기준으로 미국의 상위 20위 품목은 옥수수, 대두, 우유, 사탕수수, 사탕무, 감자, 닭고기, 토마토, 수수, 오렌지, 쇠고기, 쌀, 돼지고기, 목화씨, 보리, 포도, 목화, 상치 등이다. 이들 20개 상위 품목 대부분이 세계생산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세계 생산에서 미국이 1위인 품목은 옥수수, 대두, 수수,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 우유, 견과류 등 15개 품목이고, 사과, 배, 돼지고기, 오렌지, 복숭아, 배 등 세계 2위 품목은 20개에 달한다<표 2>. 세계생산에서 3위를 차지하는 품목은 아스파라거스, 멜론, 건조양파, 소맥 등 12개 품목이다. 오이, 마늘, 땅콩, 감자 등 9개 품목의 생산은 세계 4위이다.

2002년 미국의 곡물 생산량은 2억 9,560만 톤, 소비량은 2억 4,852만 톤으로 곡물 자급률은 119%로서 1998년 141%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품목은 기장(202%), 쌀(185%), 밀(146%), 옥수수(115%) 등이고 귀리(47%), 호밀(60%), 보리(93%) 등은 자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급률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수출 여력을 갖는 주요 곡물은 옥수수, 밀, 쌀 등으로 판단된다. 보리는 1990년대 후반까지 자급률이 100%를 넘던 품목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밀 등 다른 작목과 대체되어 생산이 이루어 질 경우 수출여력이 신장될 수 있는 품목이다. 2002년 미국은 65만톤의 보리를 수출한 바 있다.

표 2. 주요 품목별 미국이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순위(2004)

순위(품목수)	주 요 품 목
1위 (15개)	아몬드, 블루베리, 우유, 크렌베리, 그레이프푸르트, 딸기, 옥수수, 수수, 대두,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견과류 등
2위 (20개)	사과, 당근, 버찌, 면섬유, 면실, 계란, 꿀, 홉열매, 돼지고기, 상치, 오렌지, 버섯, 배, 자두, 시금치, 사탕무, 토마토, 호두 등
3위 (12개)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우, 헤이즐넛, 복숭아, 밀, 아마인, 귀리, 건조양파 등
4위 (9개)	오이, 마늘, 포도, 땅콩, 감자, 호박, 잎담배, 수박 등
5위 (4개)	양배추, 메밀 등

FAO database(www.fao.org/es/ess/)

2002년 미국의 유지작물 생산량은 8,393만톤이고 소비량은 6,047만톤으로 139%의 자급률을 보였다. 유지작물 중 자급률이 높은 품목은 대두(147%), 낙화생(122%), 유채씨(110%) 등이다. 미국 유지작물 수출의 대부분은 대두가 차지한다. 2002년 미국의 대두수출량은 2,744만톤이다. 나머지 품목들의 수출량은 대부분 30만톤 내외이다. 또한 미국은 식물성유 자급률이 107%에 이르는 가운데 대두유 수출은 130만톤에 이른다. 착유용은 물론 식용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미국 대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용대두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다.

2002년 채소 생산량은 3,821만톤이고 소비량은 3,966만톤으로 96.3%의 자급률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볼 때 채소의 대부분을 자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양파, 상추, 토마토 등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씩 수출되고 있지만 오이, 호박, 고추 등은 수입량도 많아 채소류의 산업내 무역도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관심품목 중에서는 양파의 수출여력이 특히 높고 고추와 마늘은 1,000만 달러 내외가 수출된다.

2002년 미국의 과일 생산은 1995년 2,929만 톤에서 다소 증가한 3,030만 톤이고, 같은 기간 과일소비는 3,397만 톤에서 3,706만 톤으로 증가하여 전체 과일 자급률은 86%에서 82%로 낮아 졌다.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품목은 그레이프푸루츠(250%), 포도(104%), 오렌지(102%) 등이고 바나나(0.3%), 파인애플(16%), 레몬(40%), 사과(72%) 등은 자급을 이루지 못하는 품목들이다. 과일은 품목에 따라 기후조건이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여도 단경기에는 수확시기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기도 하여 산업 내무역이 활발한 품목이다. 교역액을 기준으로 볼 때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오렌지 등 중요한 품목들이 분포하고 있다. 수출 여력면에서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품목으로는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오렌지, 그레프푸루츠 등으로 판단된다. 이중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오렌지와 그레프푸루츠는 감귤 등 소비의 대체관계에 있는 품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축산물 전체적으로 107%에 달하는 자급을 유지하면서 쇠고기는 연간 26억 달러, 돼지고기는 12억 달러, 닭고기 15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은 곡물과 함께 한-미 FTA체결 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품목들일 것이다.

다. 농산물 무역

□ 수출

농산물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축산물 수출은 광우병 발병에 따른 쇠고기 수출 감소로 감소하고 있다. 2004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634억달러이다<표 3>. 곡물 수출이 약 223억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출의 35%를 점한다. 곡물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품목군은 축산물로 전체 농산물 수출의 21%, 금액으로는 131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보였다. 그밖에 과일(41억달러), 유제품(31억달러), 채소류(27억달러) 순으로 수출액이 많다. 2003년 기준 미국 수출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은 대두, 옥수수, 소맥, 목화, 조제식품, 쇠고기 등이다.

곡물 가운데 수출규모가 큰 품목은 대두(2004년 기준, 67억 달러), 옥수수(61억 달러), 밀(52억 달러), 쌀(12억 달러), 수수(6억 달러), 감자(5억 달러)순이다<표 4>. 2004년 미국의 채소 수출규모는 약 27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6.2% 증가하였다. 채소중에서 수출액이 많은 품목은 상치(2억

표 3. 미국의 농산물 유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1995	1997	2000	2002	2003	2004
곡물류	22,140	20,839	17,029	18,074	20,881	22,296
유지류	3,175	3,904	2,639	3,029	2,985	3,052
채소류	2,086	2,266	2,428	2,393	2,585	2,746
과실류	3,592	3,765	3,727	3,741	3,917	4,094
축산물류	12,467	13,337	14,193	13,488	14,844	13,107
기 타	18,798	18,434	16,464	14,862	17,093	18,598
합 계	62,259	62,544	56,480	55,586	62,305	63,893

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

8,000만 달러), 토마토(2억 3,400만 달러), 양파(1억 2,400만 달러) 등이다. 우리의 관심품목인 고추와 마늘의 수출실적은 각각 1,500만 달러, 8백만 달러로서 다른 품목에 비해 수출액이 많은 편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미국의 고추와 마늘 수출실적이 많지 않다고 해서 민감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란 점이다. 이는 해당 품목의 시장상황이 좋아지면 미국 농업의 잠재력으로 볼 때 다른 품목에서 고추, 마늘로 생산을 전환하여 얼마든지 생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미국의 과실 수출액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약 41억 달러이다. 과실중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포도로서 2004년의 경우 약 6억 달러의 포도가 수출되어 전체 과실 수출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과(3억 8,400만 달러), 그래프푸르츠(2억 3,000만 달러), 배(1억 2,300만 달러), 복숭아(1억 1,000만 달러) 등의 수출이 많은 편이다. 포도, 오렌지, 사과, 배, 복숭아, 그래프푸르츠 등은 우리나라 과일과 직, 간접적으로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들로서 한-미 FTA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품목들이다. 더구나 미국은 신선과일 뿐만 아니라 주스 등 가공과일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4년 미국의 축산물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2.3% 감소한 13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전년도 쇠고기 수출액이 31억 달러에서 광우병의 영향으로 5억 달러로 감소한 데 기인한다. 쇠고기 수출이 감소한 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출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4. 품목별 미국의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백만달러

		1995	1997	2000	2002	2003	2004
곡물류	밀	5,458	4,182	3,388	3,632	3,958	5,181
	쌀	997	932	836	775	1,031	1,169
	보리	178	211	123	73	103	38
	옥수수	7,535	5,419	4,683	5,128	4,972	6,138
	수수	682	609	627	591	572	559
	감자	365	416	477	489	428	472
	대두	5,428	7,503	5,313	5,624	7,936	6,692
	기 타	1,497	1,567	1,585	1,762	1,880	2,048
	소계	22,140	20,839	17,029	18,074	20,881	22,296
채소류	상치	166	165	198	234	264	280
	토마토	123	156	182	169	192	234
	오이	23	23	23	26	29	32
	가지	8	8	8	9	9	11
	고추	8	11	14	13	14	15
	양파	110	95	105	104	135	124
	마늘	10	15	11	12	9	8
	당근	44	52	70	86	91	95
	기 타	1,595	1,742	1,817	1,739	1,842	1,948
	소계	2,086	2,266	2,428	2,393	2,585	2,746
과실류	오렌지	322	338	304	325	358	369
	레몬	131	123	80	84	88	75
	사과	411	420	388	380	364	384
	배	88	95	105	110	110	123
	복숭아	69	99	111	121	119	110
	포도	343	409	455	494	515	592
	키위	22	18	17	13	13	18
	기 타	2,207	2,262	2,267	2,215	2,350	2,423
	소계	3,592	3,765	3,727	3,741	3,917	4,094
축산물류	쇠고기	2,597	2,440	3,162	2,535	3,069	528
	돼지고기	751	958	1,252	1,184	1,236	1,675
	닭고기	1,679	1,900	1,565	1,359	1,517	1,766
	기 타	7,441	8,038	8,213	8,411	9,021	9,137
	소계	12,467	13,337	14,193	13,488	14,844	13,107
유지류		3,175	3,904	2,639	3,029	2,985	3,052
기 타류	면섬유	3,687	2,684	1,915	2,049	3,384	4,251
	잎담배	1,404	1,583	1,235	1,073	1,040	1,055
	권련	4,812	4,456	3,328	1,472	1,424	1,314
	초콜릿	320	377	471	478	512	560
	기 타	8,575	9,334	9,515	9,791	10,733	11,418
	소계	18,798	18,434	16,464	14,862	17,093	18,598
계		62,259	62,544	56,480	55,586	62,305	63,893

주)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

2004년도 미국의 돼지고기 및 닭고기 수출규모는 각각 16억 8,000만 달러, 17억 7,000만 달러이다.

참고로 2003년 기준 미국의 10대 농산물 수출 품목은 대두(79억 달러), 옥수수(50억 달러), 밀(39억 달러), 목화(34억 달러), 쇠고기(26억 달러), 닭고기(15억 달러), 염장육류(15억 달러), 담배(14억 달러), 돼지고기(12억 달러), 대두박(12억 달러) 등이다.

표 5. 미국의 10대 수출입농산물(2003)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억 달러)	품목	금액(억 달러)
1	대두	79.3	알콜증류음료	38.0
2	옥수수	49.7	포도주	34.0
3	밀	39.5	맥주	28.8
4	목화	33.8	쇠고기	23.4
5	쇠고기	25.9	커피콩	17.1
6	닭고기	15.1	파스타	13.3
7	염장육류	14.7	바나나	13.3
8	담배	14.2	설탕과자	11.5
9	돼지고기	12.4	토마토	11.1
10	대두박	11.8	초콜릿제품	11.0

자료:FAO database(www.fao.org/es/ess/)

□ 수입

미국의 농산물 수입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미국의 농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599억 달러에 달했다<표. 6>.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군은 축산물(19.3%), 과일(11.0%), 채소(9.6%) 등이다. 개별 품목별로 수입규모가 큰 품목으로는 곡물류 중에는 감자(6억 5,000만 달러), 쌀(2억 8,500만 달러), 귀리(1억 8,900만 달러) 등이고, 채소류 중에는 토마토(11억 3,000만 달러), 오이(3억 8,000만 달러), 호박(2억 3,100만 달러), 멜론(2억 3,000만 달러), 고추(1억 4,000만 달러) 등이다. 과일 중에서는 포도(8억 8,000만 달러), 파인애플(2억 7,000만 달러), 사과(2억 1,600만 달러) 등의 수입실적이 두드러지고,

표 6. 미국의 농산물 유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1995	1997	2000	2002	2003	2004
곡물류	1,446	2,154	2,179	2,347	2,636	2,878
유지류	1,916	2,331	2,145	1,854	2,288	3,240
채소류	2,839	3,273	4,081	4,000	5,093	5,733
과실류	3,881	4,595	5,255	4,762	6,302	6,586
축산물류	5,958	6,696	8,633	9,571	9,795	11,569
기 타류	17,799	22,018	22,657	22,498	27,365	29,868
합 계	33,838	41,067	44,950	45,032	53,480	59,874

주)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

그밖에 오렌지·사과주스 등을 많이 수입하는 편이다. 2004년 미국의 축산물 수입액은 115억 7,000만 달러이다. 그 중 쇠고기(34억 4,000만 달러), 돼지고기(9억 9,500만 달러) 치즈(8억 3,900만 달러) 수입이 주류를 이룬다.

2.2. 한·미 농산물 교역 현황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국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한국의 전체 농산물 수출입 중 미국의 비중은 각각 24%, 14%로서 농산물 무역에서는 한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2004년도 농산물 무역에서 한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25억 달러에 달한다.

가. 대미 농산물 수출

미국은 일본 다음으로 큰 한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출은 1995년 9천 500만 달러에서 2004년 2억 8,51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7>. 대미 수출농산물 대부분은 가공식품이다. 순수농산물 비중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대미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4년 기준으로 농산물의 경우 면

표 7. 한국의 대미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5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	농산물	81	94	124	148	185	192	222
	축산물	4	6	10	13	18	22	53
	임산물	10	8	12	13	12	10	10
	총계	95	108	146	173	214	224	285
수입	농산물	2,522	2,157	1,430	1,527	1,314	1,392	2,197
	축산물	566	530	809	660	978	1,165	338
	임산물	418	372	198	186	182	184	211
	총계	3,506	3,059	2,437	2,373	2,473	2,740	2,745
무역 수지	농산물	-2,441	-2,062	-1,306	-1,379	-1,129	-1,200	-1,975
	축산물	-562	-525	-799	-648	-960	-1,143	-285
	임산물	-408	-364	-186	-173	-170	-174	-201
	총계	-3,411	-2,951	-2,290	-2,200	-2,260	-2,516	-2,460

주)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류가 5,936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초류(3,641만 달러), 과자류(2,817만 달러), 주류(1,600만 달러) 등의 순이다. 미국에 수출되는 대표적인 농산물로는 배(1,544만 달러), 김치(120만 달러), 난초(187만 달러) 등이고 축산물 중에는 로얄제리(1,276만 달러) 정도이다. 수출 규모가 1천만 달러가 넘는 품목은 라면, 필터담배, 배, 기타조제식품 등 4개 품목에 불과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배, 난초, 인삼 등이 무관세이고, 김치에 대한 관세는 6.4%에 불과하여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획기적인 수출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식품소비가 식습관 또는 기호에 크게 좌우되는 특성 때문에 한국 농산물이 서구식 위주의 미국시장에 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나. 대미 농산물 수입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입은 1995년 35억 달러에서 2004년 27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대미 농산물 수입이 감소세를 보인 이유는

옥수수 수입이 1995년 12억 달러에서 2004년 7억 8천만 달러로 감소하였고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쇠고기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과일수입은 같은 기간에 2배 이상 증가하여 2004년 과실류의 대미 수입은 2억 718만 달러이다. 축산물의 대미 수입 규모는 쇠고기 수입중단으로 전년도 11억 6천만 달러에서 3억 3,76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입 중 곡물 수입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축산물, 두류, 과일 순이다. 2004년 미국으로부터 11억달러가 수입된 곡물중에는 옥수수(7억 8,200만달러)와 밀(2억 7,400만 달러) 수입이 주종을 이룬다. 쌀의 대미수입은 3,300만 달러이다. 우리나라 옥수수와 밀 수입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각각 54.4%, 41.2%이다. 2004년 6,200만 달러가 수입된 보리는 주로 호주(4,300만 달러), 프랑스(800만 달러), 캐나다(700만 달러), 중국(300만 달러)으로부터 수입된다. 서류 중에는 감자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두류 중에서는 대두가 3억 7,400만 달러가 수입돼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대두 수입에서 미국 비중은 약 77%로서 미국이 주요 수입선이다.

과일 중에서는 오렌지(1억 4,300만 달러)수입이 가장 많고, 포도(1,800만 달러), 레몬(500만 달러), 키위(360만 달러)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사과, 배, 복숭아 등은 현재 검역상의 이유로 가공품만 수입되고 신선과일은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채소류 중에는 단옥수수(2,657 만 달러), 토마토(1,292만 달러), 양파(622만 달러), 오이(470만 달러) 등의 수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축산물 중에는 쇠고기가 전체 축산물 수입액의 1/3 이상을 차지(1억 3천만 달러)하고 있으며, 돼지고기(4,353만 달러), 닭고기(387만 달러) 등이 수입된다. 우리나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5.4%(2003년 기준), 12.5%, 7.3%이다. 쇠고기 수입의 경우 미국이 주요 수입선이지만 돼지고기 수입은 칠레(5,500만 달러), 벨기에(4,400만 달러) 등이 주요 수입선이다. 닭고기는 주로 덴마크(1,600만 달러), 태국(1,600만 달러), 프랑스(400만 달러)에서 수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20~25%로 되어 있는 관세가 인하될 경우 미국산 육류의 상대적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입판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표 8.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1995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곡류	곡류합계	1,551,435	956,205	481,163	601,475	342,796	312,660	1,091,293
	쌀	—	—	225	4,523	17,463	7,883	32,768
	보리	3,219	1,394	690	2	9	19	35
	밀	307,870	289,370	213,477	225,930	209,744	260,469	274,353
	호밀	1,268	898	1,018	1,630	2,066	2,351	1,952
	옥수수	1,238,981	664,288	265,608	369,274	113,452	41,782	782,110
	기 타 곡류	97	255	145	116	62	156	75
서류	서류합계	24,143	39,280	36,216	35,766	35,290	28,844	30,574
	감 자	24,143	38,642	36,212	35,754	35,287	28,843	30,572
	기 타	—	638	4	12	3	1	2
두류	두류합계	390,134	429,735	294,599	261,885	273,502	325,205	376,925
	대두	387,303	426,702	292,055	259,781	271,399	322,942	374,317
	팥	—	—	36	38	33	108	74
	강낭콩	1,612	1,369	1,166	653	741	805	938
	기 타	1,219	1,664	1,342	1,413	1,329	1,350	1,596
채유종실		8,046	4,513	3,424	3,984	9,459	13,723	14,909
과실류	과실류합계	89,799	104,983	116,393	132,467	156,136	189,337	207,182
	사과	144	131	303	302	313	382	405
	배	27	17	35	86	8	9	141
	복숭아	2,759	3,081	2,742	2,555	2,162	1,899	1,555
	키위	4,726	2,943	710	149	546	2,753	3,575
	파인애플	892	723	569	400	486	388	400
	오렌지	33,937	44,697	72,938	87,068	100,526	124,942	142,855
	레몬	4,257	4,512	4,508	5,036	5,420	4,334	5,091
	포도	11,309	23,152	11,869	11,755	17,132	17,988	17,997
	과실혼합물	7,073	1,714	1,738	1,305	1,703	6,349	2,477
	단일과실 조제품	351	1,230	4,177	5,135	7,158	3,345	2,855
	기 타	24,324	22,783	16,804	18,676	20,682	26,948	29,831
채소류	채소류합계	41,447	59,844	49,138	50,542	51,927	60,491	59,106
	당근	72	234	225	311	357	391	333
	토마토	5,807	12,785	9,570	10,814	10,529	13,035	12,915
	오이	4,624	8,174	6,804	6,200	6,430	5,030	4,701
	딸기	1,541	1,860	816	1,420	733	1,343	1,471
	양파	5,724	6,550	379	28	73	7,111	6,221
	채소종자	3,286	2,849	2,148	1,711	1,496	1,182	1,263
	채소주스	2,420	1,014	543	400	673	649	504
	단옥수수	15,126	22,310	24,993	25,899	27,469	26,674	26,572
	기타	2,847	4,068	3,660	3,759	4,167	5,076	5,126

표 8. 계속

		1995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기 타	식물성유지	48,281	50,209	46,386	30,865	42,149	35,469	19,734
	유지가공품	2,405	16,238	13,414	15,488	19,969	15,293	15,901
	박류	1,117	5,586	9,485	26,106	7,905	23,045	7,311
	사료	32,520	53,568	89,074	99,035	108,591	131,740	128,680
	소오스류	4,718	9,292	9,406	10,100	10,293	9,579	9,308
	커피류	12,706	17,024	5,595	6,361	9,340	12,812	10,655
	주류	29,453	24,288	8,958	13,691	14,428	17,308	16,635
	음료	4,318	19,949	8,329	6,993	7,762	15,908	17,753
	과자류	18,437	19,688	29,284	24,205	22,797	27,128	23,768
	기 타	262,921	346,138	228,795	207,597	201,261	172,959	166,772
농산물 합계		2,521,880	2,156,540	1,429,659	1,526,560	1,313,605	1,391,501	2,196,506
축산물류	쇠고기	324,772	301,169	533,501	361,689	655,876	886,778	103,233
	돼지고기	38,488	30,639	16,518	15,210	18,821	17,644	43,527
	닭고기	7,702	11,914	41,766	43,723	51,832	31,720	3,871
	치이즈	11,336	18,690	11,793	14,372	14,526	17,083	20,610
	조제분유	14	1,065	2,056	3,566	1,766	3,438	2,113
	기 타 축산물 물 부산물	43,089	49,803	87,121	116,939	116,969	88,745	93,494
	단백질류	—	26,218	23,579	23,944	26,667	24,610	15,599
	기 타	140,679	90,635	92,564	81,157	91,914	94,845	55,159
축산물 합계		566,080	530,133	808,898	660,600	978,371	1,164,863	337,606
임산물류	원목	179,399	144,998	77,208	75,692	81,920	94,499	109,619
	제재목	90,527	95,439	43,695	34,403	31,320	25,414	20,238
	단판	18,768	13,564	13,084	13,478	17,220	12,757	8,136
	견과류	20,272	22,198	18,462	22,727	24,111	32,099	41,462
	기 타	108,620	95,711	45,602	39,441	27,428	18,949	31,479
임산물 합계		417,586	371,910	198,051	185,741	181,999	183,718	210,934
총계		3,505,546	3,058,583	2,436,608	2,372,901	2,473,975	2,740,082	2,745,046

주)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3. 농업부분에 대한 한-미 FTA 예상효과

3.1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가. 분석모형 및 가정

일반연산균형(CGE) 모형인 GTAP v5을 이용하여 농업부분에 대한 한-미 FTA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용된 자료는 2001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GTAP D/B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가 2001년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완전경쟁 시장하에서 산업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품목간, 산업간 생산 및 소비의 대체효과가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바뀔 경우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품목군별로 짜여진 D/B구조상 개별 품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제시된 분석결과는 한-미 FTA에 따른 시나리오별 관세 감축에 따른 효과이다. 시나리오를 달리할 경우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수입산과 국내산간 품질 차이는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나. 품목분류

GTAP D/B에는 농산물로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20개 품목군이 있다. 이 중에는 섬유작물, 사탕수수 및 무, 양모, 누에고치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미한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유(原乳)와 산동물처럼 교역이 어려운 품목도 있다. GTAP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품목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가 달라져 분석결과가 달라진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 농업에서 품목군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①미곡(조곡 및 정곡), ②곡물(밀 제외), ③채소·과일, ④유지작물(대두, 참깨, 땅콩 등), ⑤기타작물(인삼, 화훼 등 기타 경종작물), ⑥축산물(산동물 제외), ⑦낙농제품(원유제외), ⑧가공식품, ⑨음료 및 담배 등 9개 품목군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생산이 미미하거나 교역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밀, 양잠, 섬유작물, 양모, 원유, 산동물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품목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분석결과가 과대 평가될 수 있다. 비농업분야는 수산물, 임산물, 채집업(광산업 등), 제조업,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다. 분석시나리오

한-미 FTA의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에 있어서 시나리오별 FTA에 의한 관세 감축 또는 인하효과만을 고려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의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분석을 위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설정되었다. 쌀은 WTO와의 재협상에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점을 감안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곡물(보리 등), 유지작물(대두, 참깨 등)에 대한 관세는 국내 수매제도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별로 각각 50%, 30%, 10%만 감축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표 9>와 같다. ①시나리오 1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 철폐(단, 고율관세 품목은 50% 관세 감축)를 가정하였다. ②시나리오 2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단, 고율관세 품목 30% 관세감축), 주요 민감품목(채소·과일, 축산, 낙농제품) 관세를 80% 감축한다, ③시나리오 3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단, 고율관세 품목 10% 관세감축), 주요 민감품목(채소·과일, 축산, 낙농제품) 관세를 50% 감축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표 9. 분석 시나리오

구 분	내 용
시나리오 1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밀 제외)과 유지작물은 50% 감축
시나리오 2	·쌀 제외,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밀 제외)과 유지작물 관세는 30% 감축, 주요 민감품목(과일·채소, 축산물, 낙농제품) 관세 80% 감축, 나머지 품목 관세 철폐
시나리오 3	·쌀 제외,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밀 제외)과 유지작물은 10% 감축, 주요 민감품목(과일·채소, 축산물, 낙농제품) 관세 50% 감축, 나머지 품목 관세 철폐

3.2. 농업생산에 대한 파급 영향

한-미 FTA로 농업생산은 1조 1,552억원에서 2조 2,83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산물 품목군별로는 축산물(3,380억원~9,031억원), 채소·과일(1,200억원~2,554억원), 기타작물(1,792억원~1,963억원), 낙농제품(142억원~1,110억원) 순으로 생산 감소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감소율 면에서는 유지작물(49.6%), 곡물(18.6%), 축산물(14.5%) 순이다.

분석에서 확인된 사실은 곡물, 유지작물, 기타작물 등 경종부문의 관세가 감축되면 생산자원의 일부가 채소 및 과일 부문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시된 채소·과일의 생산액에는 이러한 효과가 고려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쌀의 경우도 타 품목 개방으로 생산자원이 이동하여 쌀 생산 증가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생산액이 감소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입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3에서 기타작물의 생산감소가 시나리오 2 경우보다 많게 나타난 것도 관세 감축에 따른 품목군간 상대가격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표 10. 한-미 FTA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단위: 억원, %

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미곡	-2,114	-1.5	-1,793	-1.3	-1,070	-0.8
곡물(밀제외)	-465	-18.6	-244	-9.8	-82	-3.3
채소·과일	-2,554	-2.9	-2,011	-2.3	-1,200	-1.4
유지작물	-882	-49.6	-498	-28.0	-144	-8.1
기타작물	-1,792	-8.4	-1,874	-8.8	-1,963	-9.2
축산물	-9,031	-14.5	-6,533	-10.5	-3,380	-5.4
낙농제품	-1,110	-3.6	-624	-2.0	-142	-0.5
가공식품	-3,837	-2.0	-3,582	-1.9	-2,883	-1.5
음료 및 담배	-1,045	-1.3	-844	-1.0	-687	-0.8
계	-22,830	-3.7	-18,003	-3.2	-11,552	-1.9

3.3. 농산물 수입에 미치는 효과

한-미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은 1조 8,353억원~3조 1,719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농산물 중 특히 수입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 품목군은 낙농제품(157~527%), 기타작물(337~338%), 채소·과일(71~218%), 축산물(91~215%) 등이다.

표 12. 한-미 FTA가 대미 농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단위: 억원,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미곡	-3	-6.6	-3	-5.3	-1	-3.2
곡물(밀제외)	3,949	131.9	1,815	60.6	456	15.2
채소·과일	2,294	217.8	1,528	145.1	747	71.0
유지작물	1,784	74.6	1,116	46.6	365	15.2
기타작물	5,440	336.8	5,430	336.2	5,451	337.5
축산물	11,488	215.1	8,708	163.1	4,877	91.3
낙농제품	1,619	527.3	1,059	344.9	483	157.2
가공식품	4,230	76.5	4,687	84.8	5,047	91.3
음료 및 담배	919	81.0	925	81.6	931	82.1
계	31,719	155.4	25,265	123.8	18,353	89.9

3.4. 농업고용에 미치는 효과

FTA로 생산이 감소하면 해당 부문의 고용도 줄어든다. 고용 감소 정도는 생산액의 감소정도와 취업유발계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 감소액이 클수록, 그리고 취업유발계수가 큰 산업일수록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고용감소효과는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 농업부문은 FTA로 생산이 감소하면 그만큼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농업노동력의 40%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농업부문에서 방출되면 타 산업에의 재취업이 매우 어려워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표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미 FTA로 농업부문에서는 71,505~142,816명의 고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고용감소가 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 농산물 품목군은 축산물(19,569~52,280명), 유지·기타작물(20,066~25,464명), 채소·과일(8,870~18,876명) 순이다. 고용감소 폭이 큰 부문은 곡물(3.5~19.5%), 낙농(2.3~17.8%), 축산물(5.3~14.3%) 순이다.

표 14. 한-미 FTA가 농업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단위: 명,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미국	-15,668	-2.1	-13,289	-1.8	-7,931	-1.1
곡물(밀제외)	-9,116	-19.5	-4,780	-10.2	-1,613	-3.5
채소·과일	-18,876	-2.8	-14,858	-2.2	-8,870	-1.3
유지·기타작물	-25,464	-9.9	-22,592	-8.8	-20,066	-7.8
축산물	-52,280	-14.3	-37,821	-10.3	-19,569	-5.3
낙농제품	-3,653	-17.8	-2,051	-10.0	-467	-2.3
가공식품음료담배	-17,759	-10.1	-16,101	-9.1	-12,987	-7.4
계	-142,816	-6.2	-111,494	-4.9	-71,505	-3.1

3.5. 타 분석 결과

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2001)

200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GTAP를 이용하여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쌀을 포함한 전 품목의 관

세를 즉시 철폐하는 가정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D/B는 1995년 기준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직후이기 때문에 주요 품목의 관세상당치(T.E)를 계산하였다. 한-미 FTA로 농업부문에서 88억 1,900만 달러(8조 8,190억원)의 생산감소를 전망하였다. 주요 품목군별 생산감소액은 쌀 3,000억원, 축산물 240억원, 과일·채소 1,369억원, 낙농제품 1,370억원, 기타 농산물 및 가공식품 8조 2,220억원이다.

ITC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로 본 연구는 쌀을 제외한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상정한 반면 ITC 연구는 쌀도 관세 철폐대상에서 포함시켰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나리오를 달리하면 분석결과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둘째 ITC 연구에서는 양허세율을 이용하지 않고 관세상당치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양허세율을 이용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ITC가 계산한 주요 품목의 관세상당치는 쌀 74.4% 육류 40.3% 과일, 채소 35.5%, 낙농제품 100.9%, 기타 54.1% 등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한 관세와 큰 차이를 나타낸다. 마지막 세 번째, 주요 품목 이외 기타 및 가공식품을 한 개의 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생산 감소액을 계산하면 관세수준이 왜곡되어 생산 감소액이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나. 동국대 박강식 교수(2002)

2002년 동국대 박강식 교수도 ITC와 마찬가지로 1995년 D/B를 이용하여 한-미 FTA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쌀을 제외한 주요 품목 관세는 ITC가 계산한 관세상당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쌀 관세상당치는 저자가 447.02%로 직접 계산하였다. 설정된 시나리오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 철폐로서 곡물과 유지작물을 제외하면 본 연구 시나리오 1과 유사하다. 저자가 제시한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은 1조 630억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약 7,000억원 가량 적다. 이것은 이용된 D/B 및 관세 수준, 품목분류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ITC가 계산한 관세상당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곡물, 유지작물 등에 대한 고율관세가 분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농업 생산 감소 효과가 적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4. 시사점

농업부문에 관한 한 한-미 FTA는 한-칠레 FTA 등 다른 FTA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한-칠레 FTA에서 경험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의 성패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농업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나 되는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익상 한-미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농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농업부문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FTA 협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교역가능성, 가격차, 관세수준 등을 고려할 때 한-미 FTA로 특히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군은 축산물(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제품(탈지분유, 유장분말 등), 곡물류(대두, 맥류, 서류 등), 과일(사과, 포도, 감귤, 복숭아 등), 채소(양파, 마늘, 고추 등), 기타(잎담배, 천연꿀, 인삼) 등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상개시부터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미국이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자국의 초민감 품목인 설탕 및 설탕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낙농제품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8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원칙에 따른 보상과 함께 생산전환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농업계에서도 DDA 농업협상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한호, 2005. “한국-캐나다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외교통상부 주최 한-캐나다 FTA 공청회 발표 논문(2005.5.6)
- 김한호, 2004. “한-아세안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외교통상부 주최 한·아세안 FTA 추진관련 공청회 자료집(2004.8.4).
- 문춘걸 외, 『한·칠레 FTA 발효시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 피해액』,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2003.
- 박강식 외, 2002.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
- 최세균 외, 2002.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Choi Inbom and Jeffrey J. Schott, 2004. “Korea-US Free Trade Revisited,” Jeffrey J. Schott, ed., *Free Trade Agree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Jeong Jae-Hwa, 2004. “The Korea-US FTA-Korean Business Community’s Perspective-”, 한-미 FTA 1차 사전실무모임 발표자료(미발간)
- Kang, moonsung, 2004. “Korea-U.S. FTA: Trade and Investment Creation Effects and Trade Structure”, 한-미 FTA 1차 사전실무모임 발표자료 (미발간)
- Rogowsky, Robert A., 2004.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Free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presented to AEI-KITA Conference, Tuesday, October 27, 2004.
- World Bank, 2004. *World Development Report*.
-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 FAOSTAT(<http://www.fao.org>)
- <http://www.nass.usda.gov/az/04bul/pdf/pg63.pdf>
- <http://www.usda.gov/wps/portal/usdahome>

한·미 FTA 농업부문 대응방향

2006. 2. 15

농 립 부

1. 협상 여건

- 농업부문은 그동안 UR협상, 한-칠레 FTA, 쌀협상 등을 통해 시장개방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음
- 개방확대는 불가피한 세계적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하고 있음
- 한-미 FTA는 농업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농업의 민감성이 협상에서 반영되지 못한다면 어려움은 가속화될 전망
- 농경연 분석에 따르면 농업 생산액은 협상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 최소 1조 1,500억원에서 최대 2조 2,800억원 생산 감소 전망
- 농산물 수입액은 축산물, 과일 등을 중심으로 최소 1조 8,400억원에서 최대 3조 1,700억원 증가 예상
 - 일부는 제3국에서의 수입을 대체되는 것도 있고, 생산 감소로 연결되는 것도 있음
- 다만,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FTA 자체로 인한 시장개방 효과에도 다소 차이가 발생
- 관세상한 설정, 고율관세 대폭 삭감 등이 결정될 경우, 한-미 FTA로 인한 추가 시장개방 효과는 다소 감소

현 단계에서는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

2. 협상 전망

□ DDA 협상에서의 미국 입장 및 미국이 체결한 FTA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관세철폐 요구 예상

○ DDA 농업협상에서의 미국측 제안서 요지

- 현재 60%가 넘는 관세율은 90%를 감축하고,
관세상한 (75%) 도입을 주장하는 등 매우 급격한
관세감축 주장
- 관세감축에 신축성을 둘 수 있는 민감품목의 수도
전체 품목의 1% 이하로 하되, 수입쿼타 증량을 요구

○ 미국이 체결한 FTA 사례

- NAFTA : 설탕 등 극히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관세철폐
- 미·중남미 FTA : 일부 품목 특별 취급(수입쿼타
설정)

□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우리나라의 주요 민감품목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관세인하계획 협상에서 진통 예상

-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낙농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차별화된 한우 고급육은 피해가 다소 작을 전망
- 곡물 중에서는 대두, 감자의 피해가 우려되나, 옥수수과 밀은 이미 수입 의존도가 높아 영향이 미미할 전망
-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은 검역문제 해결시까지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나 미국 과일이 경쟁력이 높은 것을 유의

3. 대응 방향

< 기 본 방 향 >

- ◇ 한미 FTA는 농업의 민감성이 고려되어 우리 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
- ◇ 협상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업인의 협상참여를 확대
- ◇ 협상 진행과정에서 농업피해 지원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되, 피해가 집중되는 부문은 별도 대책 추진

가. 협상 전략

- ☐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협상의 기본원칙으로 제시
- ☐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

- 다양한 방식의 관세인하계획을 제시하되, 양허제외, 수입쿼타 설정,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등 방식
- 협상 개시에서 비준까지 전 과정에서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
 - 협상개시 전 농업부문 협상전략 수립과 관련한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 민감품목에 대한 농업계 의견 수렴
 - 상품양허안 작성 등 협상의 중요 국면에서는 축산 등 주요 품목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참여 제도화
- 협상 과정에 대한 투명성 증진으로 신뢰 확보 추진
 - 협상의 주요 국면마다 농업계, 국회, 언론 등 설명 추진
 - 수시로 협상상황 설명회, 토론회, 품목단체협의회 개최

나. 농업 지원 대책

- 한-미 FTA 결과 관세철폐 등 개방 폭이 커져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범정부적으로 추가 대책을 강구
 - 정부와 연구기관 합동으로 품목별로 예상 피해를 정밀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
- 농가 유형별, 품목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농가

소득안정정책과 경쟁력 강화 대책 병행

- 농가단위 소득직불제,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등
-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마케팅·기술 등 컨설팅 지원 강화

□ 대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제 구축

- 피해 지원을 위해 FTA이행지원 기금의 규모를 확대
- 'FTA이행지원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

한·미 FTA 추진현황

2006. 2. 15

외교통상부

한·미 FTA 추진 현황-외교통상부

I. 우리 정부의 FTA 추진 현황

1. 추진 방향 및 전략

□ 추진 방법 : 동시다발적 FTA 추진

· FTA 체결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각 FTA별로 서로 다른 효과를 상호 상쇄·보완

□ 지향점 : 거대·선진 경제권 및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

·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

· 브라질, 인도 등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도 병행

□ 추진 내용 :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목표로 하되,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실리적 접근

·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는 한편,

· 신흥시장과의 주요 상품의 시장확보에 주력하는 유연한 접근

□ 추진 기반 :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FTA 추진

·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 제정 및 시행을 통해 FTA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고

↓↓↓

상기 전략에 따라 20여개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 또는 공동연구 진행 중[FTA추진 로드맵]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04. 4월 한·칠레 FTA 발효, '05. 8월 한·싱가포르 FTA 서명 (12월 국회비준), '05. 12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서명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현재 ASEAN · 일본 · 캐나다 등과 FTA 협상 중

- ASEAN과 '05. 12월 기본협정 서명, 금년 상반기내 상품분야 협상 타결 추진
- 캐나다와 '05. 7월 공식협상을 개시, '05. 12월 제3차 협상 개최
- 멕시코와 '05. 9월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협상 개시 합의
- 일본과는 '03. 12월 협상 개시, 6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일측이 너무 낮은 농수산물 양허계획을 제시해와 현재 협상 중단 상태
- 우리측은 '04.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체결 추진
- 인도와 '06. 1월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공동연구 완료, 조만간 정식협상 개시 준비

□ 남미 공동시장 등과 공동연구 진행중

- 남미공동시장 (MERCOSUR)*과는 '05. 5월 공동연구 개시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기타 한·중,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 진행 중

II. 한·미 FTA 추진 경과

□ '04년 하반기 이후 「동시다발적 FTA 정책」의 지향점으로 미국과의 FTA 체결 추진

- '04. 11월 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양국은 FTA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간 예비협의를 개시에 합의
- '05. 2~4월간 3차에 걸쳐 FTA협상출범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양해하에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 상대국의 FTA 추진정책, 상대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 협정문 내용 검토 등
- 이후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한·미 FTA 출범 가능성 모색
- 통상교섭본부장은 '05. 7월, 9월 미 의회 및 업계를 상대로 한·미 FTA지지 확보 노력 전개

□ '05. 9월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 형성

- 미 행정부는 '05. 9월 한국 등 4개국*을 우선 FTA 협상대상국으로 선정
- *한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스위스

□ 노무현 대통령은 1. 18(수) 신년연설에서 한·미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의지 표명

- 1. 27(금)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 민간자문위원들은 한·미 FTA 추진 필요성에 동의
- 다만, 일부 민감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지적

Ⅲ. 한·미 FTA 추진 필요성

□ 한·미 FTA 체결시 상당한 경제적 이익 예상

-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13조9천억원(1.99%), 대미교역량 193억불 증가 및 10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 ('05. 12월 KIEP)
- 특히, 제조업의 경우 대미수출이 44억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본산 부품·소재를 대체하여 **대일 의존적 생산구조 극복** 계기 제공
 -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부품소재 품목('04년 255억불, 전체의 28%)이 FTA이후 대미수입이 예상되는 부품소재 품목과 대부분 중복
- 농업·서비스 등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들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대미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우리 농가에 다소간의 피해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나,
 -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의 일부가 국내 농업생산 감소를 초래하기 보다는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정부는 협상을 통해 민감성이 매우 높은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장기 이행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예정

- 서비스 부문의 경우, 90년대 후반 유통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의 결과 오히려 우리 서비스 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크게 제고된 경험에 비추어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

□ 가시적인 경제지표 개선 외에도 상당한 “외적 가치” 창출

- 우리 경제·사회 제도 전반의 선진화와 안보 리스크 완화에 기여, 이에 따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 증가
- 또한 법률, 의료, 교육 등 선진국의 전문서비스를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 제고

□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도, 지난 50년간의 한·미 안보동맹 체제를 보다 호혜적·포괄적인 「경제동맹」으로 승격시키는 의미

- 동북아·미국 간 연결고리 제공으로 역내 우리 입지 강화
- 미국과 FTA 체결을 선점하여 주변국과의 경제통합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 점유
- 동북아 FTA 네트워크 허브로 도약

□ 업계 및 일반 국민도 한·미 FTA 체결을 지지

- 전경련과 한국무역협회가 2004. 11월 및 12월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 및 75%가 한·미 FTA 체결을 지지
- 한국갤럽의 2004. 1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0.4%가 한·미 FTA에 호의적

IV. 한·미 FTA 추진 계획

□ 양국 국내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조기 협상 공식출범 추진**

-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 2(목) 공청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FTA 협상개시 여부를 심의·결정

※ 미국은 관계부처 회의 및 의회와의 협의 필요

□ 제1차 협상은 협상 공식출범 90일 후 개최 가능

-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상 미 의회에 협상개시 의사 통보 90일후 공식협상 가능
- '07. 3월까지 협상 타결 추진

※ TPA법이 2007. 7. 1일 종료 예정인바, 3개월 전인 4. 1일까지 협상결과가 미 의회에 통보될 필요

□ 내용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

- 다만, 농업 및 일부 서비스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국내적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

지정토론

한-미 FTA의 선대책은 무엇인가?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이두원

일본과 우리나라는 농업 현실이 비슷하다, 그리고 또한 각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FTA를 보는 시각이나, 대응에 있어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FTA 추진에서도 이는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에 올인하는 모습과는 달리, 일본이나 스위스는 최대 피해대상자인 농업을 위해 국가적 이득이 분명한 미국과의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FTA, 더 나아가 중국과의 FTA는 농업분야에 커다란 위기임에 틀림없다, 이런 이유로 농업계 모두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는 여타 FTA보다 국내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 우리나라의 농촌의 붕괴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농업계는 정부가 한-미 FTA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및 우리농업의 유지발 전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실시한 상태에서, 한-미 FTA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미 FTA는 반드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도·농간의 빈부격차 심화,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 농산물의 수입의존 심화로 인한 자급률 하락에 따른 식량안보 불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경제적 논리에 따라 한-미 FTA의 실익을 따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업계 현실에서 적용할 수는 없다.

정부는 또한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는 한-미 FTA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추진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고 할 것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의 국내적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 강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2일 한-미 FTA공청회 과정을 보면 정부의 불순한 의도를 파악하기 충분하다. 정부가 무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는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얼마나 제고한 것인지? 또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의 대책으로 무엇을 강구하였는지 묻고 싶다.

FTA는 다자간 협상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선택적으로 추진여부와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FTA추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의 일본은 우리만큼 불안해하고 있지 않다.

일종의 자신감 일 것이다. 일본인들은 자국 농산물에 대해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긍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고 한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에서 끊임없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협심해 대응해 오고 있으며, 상호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미FTA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한-미 FTA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시간에 쫓겨 농업을 붕괴시키기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현실적으로 한-미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축산물이 수입되면 당연히 관세가 부과된다. 2005년의 경우 축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 수입이 8천억원 규모라고 한다.

관세수입 전액을 축발기금화 해서 축산발전에 온전히 재투입한다면 수입 개방과 관련한 축산농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지금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보다 일찍 축산물 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경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관세 전액을 화우산업에 쓸 수 있는 목적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바로 “육용자 우 생산안정등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쇠고기 수입관세전액을 일본 소 산업 육성에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직접 피해를 보는 농민 및 농민단체와 이익을 보는 산업계가 공동으로 해당 수입농산물의 관세를 목적세화 하는 것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미 FTA의 이득과 피해, 총체적 득실 등을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상태에서 한-미 FTA협정은 양극화가 점점 확대될 수 있어 피해 집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가를 책임 있게 검토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한미 FTA협상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I. 서론

- WTO출범이후 최대 피해산업인 농업은 금번 한미 FTA체결 시 또다시 큰 피해와 더불어 산업자체의 기반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금번 한미 FTA협상 추진에서도 드러난 정부 협상의 문제점은 오직 경제적 국익 즉 2차산업의 성장을 통상조약 추진의 가치판단으로 간주하고 있음
 - 농민등 이해당사자의 의사와 정보수렴, 국회내에서의 정치적 합의 등 민주적절차와 피해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책 마련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II. 본론

-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라고 일컫는 경제적 이익의 지표를 보면, 한미FTA 체결시 GDP2% 증가, 10만의 고용증대 등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함
 - 이와반대로, 미국 무역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체결시 우리나라는 연 90억불의 무역역조와 섬유의류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용감소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특히 농업부문에서 88억불(약 8조원)의 생산감소, 축산물 240억원, 낙농제품 1370억원의 생산감소를 추정하고 있음
- 경제적 국익 측면에서도 한미 FTA협상을 왜 하는지 의문점

- 이 제기되고 있으며,
- 무엇보다 국익은 경제적 국익도 중요하지만, 식량 주권, 문화적 국익도 매우 중요한 것임
 - 스위스의 경우도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농업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진을 하지 않은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FTA협상 개시 이전에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적 논의, ►국회의 검증, ►국내대책의 전시행이 우선돼야 함
- 그런 측면에서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통상협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엄격하게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상절차법안과,
 - 개방의 수혜자로부터 재원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안도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함
- 무엇보다 무대책으로 인한 농업전반의 혼란과 재앙을 초래할 한미 FTA협상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 낙농산업의 경우 94년 UR협상 실패로 시유외에 모든 유제품이 완전개방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원유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고 있음
 - 그러기에 현재 농림부에서 논의중인 낙농산업발전대책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며, 이런 국내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개방이 이뤄진다면 농가불만과 함께 낙농혼란이 가중될 것임
 - 낙농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유수급 안정과 낙농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낙농제도 개혁과 함께 ►백색시유 시장 확대와 더불어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우유표기 개선, 혼합분유 관세품목 세분화와 같은 제도적인 소비확

대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함

Ⅲ. 결론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산업인 농업은 시장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라고 누구나 인정되는 부분임
- 특히 미국의 경우 세계 생산 1위에 우유, 쇠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 축산업의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농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축산업관련 정부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축발기금의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한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과감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함
- 또한 우리 축산인들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임
- 이런 고민속에서 얼마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내에 한미FTA 대책위가 구성되었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전축산인이 하나가 되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한-미, 한-캐나다간 FTA 협정 축산업계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지정 토론 자료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
(www. koreapork.or.kr)

1. 한-캐나다, 한-미 FTA 협상 추진 상황

가. 한-캐나다 FTA 협상 추진 상황

- 한-캐나다 FTA 협상 공식개시 선언('05. 07. 15)
- 총 3차 협상 실시
- 2006. 02. 13~16일 4차 협상 예정
 - 주요 내용: 농산물 수입액 기준 관세 철폐 상향 조정 요청

나. 한-미 FTA 협상 추진 상황

- 2006. 02. 02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농민반발로 무산)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 추진 결정
- 2006. 02. 03 한-미 양국정부 FTA 협상 개시 선언

2. 농축산업 및 양돈산업의 중요성

가. 농축산업 생산액, 양돈 생산액

- 2004년 농축산업 생산액은 총 37조2,886억원
- 양돈생산액은 총 3조6,668억원으로 미곡 다음으로 2위
- 양돈부문 2차산업 등 관련산업 감안시 : 9조6천억원 생산유발 효과

[표 1] 농축산업 생산액

품 목	생 산 액	유발 효과
농축산업 생산액	37조2,886억원	-
농축산업 생산액중 돼지부문	3조6,668억원	9조6,000억원

3. 한-캐나다, 한-미 FTA 체결시 피해 추정액

가. 한-캐나다 FTA 체결시 양돈산업 피해 추정액

-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추정(한-캐나다 FTA 공청회 발표)
 - 장단기적으로 180억원에서 300억원의 피해 예상
- 우리 협회 의견
 - 생산자단체 및 관련전문가의 피해액 재점검 필요
 - 양돈관련산업 피해까지 산정 필요
- 공청회 자료에서 양돈 생산액에 대한 1차적인 피해만 산정하였으나 2차 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여

피해 산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산정했을 때 최소 3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나. 한-미 FTA 체결시 농축산업 피해 추정액

1) 국내 농축산업 생산 감소액

○ 농축산업 피해액 : 2조~8조8천억원(농경연 권오복 연구위원 등)

* 국내 농축산업 생산액 : 20조원의 44% 피해

○ 축산업 단기 피해액 : 3,380~9,031억원(한-미 FTA 공청회 자료)

- 농축산업 전체 피해액의 40%가 축산업 피해액
- 돼지고기 피해액 : 2,455억원 추정

○ 우리 협회 의견

- 생산자단체 및 관련전문가의 피해액 재점검 필요
- 양돈관련산업 피해까지 산정 필요
- 공청회 자료에서는 양돈 생산액에 대한 1차적인 피해만 산정하였으나, 2차 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여 피해 산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산정했을 때 최소 3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2) 국내 농축산업 고용인원 감소

○ 농축산업 고용인원 감소 : 71,505명~142,816명

○ 축산업 고용인원 감소 : 19,569명~52,280명

3) 한-미 FTA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군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미국의 축산물 자급률 : 107%
- 미국 수출액: 쇠고기 26억달러, 돼지고기 12억달러, 닭고기 15억달러
- * 축산물 : 곡물과 함께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 미칠 품목임
- 낙농제품 (탈지분유, 유장분말)
- 곡물, 과일(사과, 포도, 감귤, 복숭아), 채소 등

4) 한-미 FTA 체결시 농축산물 수입 증가율(농경연 자료)

- 낙농제품 : 157-527%
- 기타작물 : 337-338%
- 채소과일 : 71-218%
- 축산물 : 91-215%

4. 한-미 FTA 협상 추진 문제점

가. 한-미 FTA 협상 절차상 문제점

- 자유무역협정 이행 절차법 위반
 - 2006. 2. 2 외교부 주최 공청회 : 요식행위로 원천무효
(공청회 무산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음)
 - 2. 2 오전 공청회 → 2.2 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한-미 FTA 협상추진 결정) → 2.3 오전 한미 정부 FTA 협상개시 선언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절차법을 위반한 것임.
 - * 그럼에도 외교통상부는 개최 선언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절차를 밟았으며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함
- 양돈협회 의견 : 적법한 절차없이 진행되는 한-미 FTA협상은 불법

나. 협상 일정이 매우 촉박해 졸속 협상 우려

- 실질적인 협상기간 : 11개월에 불과(2006.5~200.3)
 - 미행정부 무역촉진권한법상 2007. 6월까지 국회 비준받아야
 - 실질적인 협상기간이 매우 짧아 졸속 협상 우려되고, 특히 농축산업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
- * 한-칠레 FTA 협상기간 : 협상개시 - 협상완료까지 3년 소요
- * 쌀 협상시 1개 품목 협상하는데도 1년 소요

- 미국 GDP 10조달러 이상 :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21배인 경제대국
 - 미국은 FTA 체결 대비 충분한 사전 연구 진행
- 국민들과 사전 협상개시 합의도 없이 졸속 협상 진행

다. 한-미 FTA 체결시 한국 경제에 별무소득

- 한-미 FTA 체결시 수출증가율
 - 미국의 대한국 수출 : 43~54% 증가
 - 한국의 대미국 수출 : 21~23% 증가

- ➔ FTA 발효 4~5년후 : 대미 무역흑자규모 100억달러에서 적자 전환

- 한-미 제조업 평균 관세율
 - 미국 : 평균 1.5%, 한국 : 평균 7.2%로 대미 수출 효과 미

미

* 주한 미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 자료

라. FTA 체결 대비 국내 농축산업 사전 대책 수립 미흡

- 농업농촌종합대책 한-미 FTA 체결 미반영
 - 동 대책이 한·캐나다, 한·미 FTA 협상 전에 수립되어 농축산업계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음.
- 사전 충분한 피해액 산정과 사전 대책없이 FTA 협상 추진
- 사전 대책없는 FTA 추진은 ‘농민에 대한 사형선고’

마. 조기 한-미 FTA 체결시 DDA 협상 불리

- 조기 FTA 체결시, DDA 협상에서 우리 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큼.
- DDA 협상 및 타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큰 영향 미칠수 있음.

5. 한-캐나다, 한-미 FTA에 대한 입장

가. 대책없는 한-미 FTA 협상 반대 및 협상 즉각 중단 요구

- FTA 체결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후 협상 추진
 - ‘선대책 후개방’의 원칙하에 다각적인 FTA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함.
- 정확한 피해 산정 및 피해 대책 마련하기 전에 한-미 FTA 협상은
절대 반대
 -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 정확하고 투명한 피해 금

액 산정과 FTA 체결시 발생하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산업보전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FTA 협상을 반대

○ 농축산농가 지원대책 마련 필요

-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WTO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접적 소득 보전을 위한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스위스는 미국과 FTA 체결 포기

- 2006. 01. 27 스위스는 미국의 농업부문 전면개방 요구에 불복하고 FTA 체결 추진을 중단했음.

○ 한-미 FTA 체결 선결과제 수용한 굴욕적 FTA

- 스위스에 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축소,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미국 의약품 약가 산정 등 미국이 요구하는 4개 FTA 선결과제를 해결하고 미국과의 FTA를 서두르는 정부가 과연 농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 의문.

→ 사전 대책없는 협상 즉각 중단해야

나. 피해집단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우선

○ 논의 방향 : 피해 집단의 피해 최소화 방향이 논의의 초점되어야

- FTA :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 큰 폭의 농축산물 수입증가 → 대규모 농축산물 생산 감소 → 농업생산기반 위축 초래

○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 투융자계획 전면 재검토

-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 투융자계획 : 한-미 FTA 등 고려하지 않고 수립된 정책임.
-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전혀 다른 별도의 특별대책 수립해야
- 대책 : 1회성 보상 방식이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다. FTA 협상시 충분한 기간 설정 필요

- 한-미 FTA 협상을 2007년 6월말로 종료되는 미국의 신속 협상권(TPA)에 쫓겨 신중한 검토 없이 졸속 협상시 국내 농축산업 큰 타격 예상.
- 사전에 충분한 피해액 산정과 대책 마련,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후 충분한 기간을 갖고 협상 추진 필요

라. 농축산인들 FTA 협상 참여권 보장

-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인 대표를 협상에 참여시켜야
- 사전 품목별 정확한 피해정도 계측후 협상
- 현재의 농업생산액 또는 생산력 유지 방안 반영

마. 통상협상 절차의 새롭고 실질적인 민주화 필요

- 행정부의 과도한 통상협상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절차 마련해야
- 통상관료 오만방자 및 밀실외교(스크린 쿼터 축소시 국회 문화관광위 사전협의나 통보 없었음.
- 정부, 농민, 국회 3자 통상협상 협의기구 구성 - 농업회생방

안 논의

- 국회의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통상협상 감독 권한 강화해야

바. 사전 대책마련후 농축산물은 양허 제외 품목으로 협상

-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다원적 기능을 하는 농축산업 품목은 양허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함.
-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돼지고기 생산비는 우리 나라의 50% 수준임.
- 미국과 캐나다에 돼지고기 시장을 전면개방할 경우, 우리 나라의 양돈산업은 존재하기 힘들음.

[표 2] 미국, 캐나다와의 돼지고기 생산비

(단위:원, 100kg, 2004년)

나라	한국 ¹⁾	미국 ²⁾	캐나다 ²⁾	덴마크 ³⁾
가격	179,199원	89,360원	92,840원	111,974원

- 축산물은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해야
 -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축산물은 반드시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양허품목에서 제외해야 함
- 미국 : 호주와의 FTA 협상 사례
 - 초민감품목 : 설탕, 설탕제품 양허 대상 제외
 - 축산물 등 민감품목 : 18년 이상 장기이행기간 설정 사례.
- 기타 농축산업 보호 대책 수립 필요
 - 이외에 SG, SSG, TRQ 등 우리 나라의 농축산물 보호를 위한 모든 대책이 동원되어야 할 것임.

6. 향후 양돈업계의 FTA 대응 방안

가. 농축산업계 공동 반대활동 적극 전개

- 농축산업계와 연관산업계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FTA 협상 반대 활동 적극 전개
 - 축단협 차원의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 구성
 -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협상저지 서명운동 등 전개

나. 실질적인 품목별 피해액 산정, 대책 수립

- 관주도가 아닌 품목단체 주도로 품목별 연관산업까지 포함한 피해 금액 산정
- 향후 협상 전략, 향후 대응방안 연구 및 대책 수립